

#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방성혜,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 Study of Queen *Inhyun's* death through the Clinical Records in *Seungjeongwon Ilgi*

Sung-Hye Pahng, Wung-Seok Cha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from what kind of disease Queen *Inhyun*(仁顯王后) died through the clinical records written in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The method to do this study was to search the records of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from Sukjong 26th year to 27th year on the website databased and serviced b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results wa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website search, Queen *Inhyun*(仁顯王后) suffered from purulent coxarthrits for one and a half year. As time passed by, the lesion of disease spread to her abdomen and heart. Finally, she died of difficulty in breathing.

**Key Words :** Queen *Inhyun*(仁顯王后),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King *Sukjong*(肅宗), Purulent Coxarthrits

### I. 서론

인현왕후는 숙종의 계비로 숙종 6년 사망한 인경왕후의 뒤를 이어 숙종 7년에 왕비로 책봉되어 궐로 들어왔다. 이후 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지지세력이던 서인이 축출당하면서 이듬해 인현왕후 역시 폐위되었고, 다시 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왕비로 복위되었다.

왕비로 복위되어 다시 입궐한 지 7년 후인 숙종 27년 8월 14일에 인현왕후는 그만 사망하고 만다. 발병이 최초로 보고된 시점이 숙종 26년 3월 26일이므로 사망하기까지 1년 6개월을 병고에 시달린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인현왕후의 병정에 관하여 간략한 기록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인현왕후의 병정과 치료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대 군왕들이 어떤 질병을 앓았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있었지만 왕후의 질병과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보고는 아직 없다. 이에 『승정원일기』에서 전해지고 있는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자세한 기록을 통하여 인현왕후가 어떤 질병을 앓았으며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한 인물의 치병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의안을 수집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의안은 단순한 진료 기록의 차원을 넘어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논문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 것으로 의안을 통하여

□ 접수 ▶ 2012년 2월 28일    수정 ▶ 2012년 3월 25일    채택 ▶ 2012년 3월 26일  
□ 교신처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9446    Fax 02-965-5369    E-mail chawung@khu.ac.kr

의가들의 임상 경험뿐만 아니라 그 학술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sup>1)</sup>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치병 기록을 통해 당시 왕실 의학의 학술적 성향 또한 일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II. 본론

###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인현왕후의 발병이 처음 보고되는 시점이 숙종 26년 3월 26일이고 사망한 날짜가 숙종 27년 8월 14일이다. 따라서 인현왕후의 자세한 치병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의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한 『승정원일기』 웹사이트(<http://sjw.history.go.kr>)에서 먼저 ‘中宮殿’으로 검색한 후에 다시 숙종 26년과 숙종 27년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재검색하였다. 그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 대략 1,300여 건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었다. 이 기사들 중 약방(藥房)에서 왕비의 병정에 관해 왕에게 보고하는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 450여 건의 기사들을 추려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2. 병세에 관한 기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병세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통증의 시작’ 시기로 최초로 왕비의 발병이 보고된 숙종 26년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주된 증상은 환도혈 주변의 통증이었다.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하는 말을 듣기로는 중궁전이 며칠 전부터 좌우 양쪽의 다리가 아픈 징후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 이후로는 통증이 배로 극렬해지니 증상이 통풍과 유사합니다.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다리가 아픈 징후는 오른쪽이 심한데 환도혈 윗부분의 요척(腰脊) 부위 근처에서 현저하게 붓기가 있고 통증을

참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야간 이후에 통증이 배로 극렬해진다 합니다.<sup>2)</sup>

이 통증은 점차 심해져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되었고 더불어 발열의 증세도 함께 나타났다.

약방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한 말을 들으니 중궁전에 번열의 증후가 나타나는데 오전 이후에는 줄어들었다고 하고 요척의 오른쪽 다리의 환도혈 근처가 손으로 누르면 통증을 견딜 수가 없는 데다가 약간의 붓기도 있다고 합니다.<sup>3)</sup>

그리고 며칠 후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약방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입진한 후 전하는 말을 들으니 중궁전의 증후는 단지 허리와 다리만 통증이 심한 것이 아니라 통처가 퍼져 점점 넓어진다고 합니다.<sup>4)</sup>

통증의 범위가 더 넓어졌지만 통증의 뿌리가 되는 곳은 환도혈이라고 의관들은 판단하였다.

약방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입진한 의녀가 전하는 말을 듣고 또한 여러 어의들과 상의한 즉 중궁전의 환후는 다리의 통처가 비록 넓게 퍼져있지만 그 뿌리는 요척 아래의 환도혈에 있으니 혹은 아프고 혹은 시큰거리는데 항상 고통스러우니 이는 습열과 담음이 합쳐져서 경락을 막은 소치입니다.<sup>5)</sup>

1) 김남일.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 의사학회지. 2005; 18(2): pp.189~190.

2)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3월 26일 5번째 계 : 藥房啓曰, 卽聞醫女所傳之言, 中宮殿自數日前, 有左右脚部疼痛之候, 昨夕以後, 痛勢倍劇, 症涉痛風云. 再啓曰, 卽伏聞醫女所傳之言, 中宮殿脚部疼痛之候, 右邊爲爲甚, 環跳上腰脊近處, 顯有浮氣, 痛難堪忍, 而夜分後, 症勢倍劇爲教云. / 이하의 각주에서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인용한 경우에는 書名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3) 숙종 26년 3월 29일 7번째 계 : 藥房再啓曰, 卽伏聞入診醫女所傳之言, 中宮殿症患煩熱之候, 朝後則頗減, 而腰脊右邊脚部環跳近處, 以手按摩, 則痛不可堪, 且微有浮氣云.  
4) 숙종 26년 4월 8일 3번째 계 : 再啓曰, 卽伏聞醫女入診來傳之言, 中宮殿症候, 非但腰脚, 酸痛甚苦, 痛處亦且散漫漸廣云.  
5) 숙종 26년 4월 10일 6번째 계 : 藥房再啓曰, 卽伏聞入診醫女所傳之言, 仍與諸御醫商議, 則皆以爲中宮殿患候, 脚部痛處, 雖流注散漫, 其根本則在於腰脊下環跳上, 或痛或酸, 一向作苦, 此是濕熱挾痰, 壅滯經絡之致.

두 번째 단계는 ‘경련의 시작’ 시기로 숙종 26년 4월 14일부터이다. 통증이 계속 되다가 4월 14일부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경련이었다. 다리에서 시작된 경련은 전신의 경련으로 이어져 의녀와 의관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

약방 도제조 이하가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하는 말을 들으니 중궁전이 새벽부터 다리의 근맥이 떨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 몸을 떨고 혼드니 신 등이 놀람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함문 밖에 와서 이르렀습니다.<sup>6)</sup>

4월 14일에 시작된 경련은 5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5월 5일 경에 가서야 진정되었다.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하는 말을 듣기로는 중궁전의 환후는 야간에 다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근맥의 떨림이 5~6 차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 등이 앞드려 걱정과 초조함을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sup>7)</sup>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입진한 의녀가 전하는 말을 듣기로는 중궁전의 환후가 날이 밝은 이후로 다리의 통증이 약간 덜해졌고 근맥의 떨림이 이때에 다시 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sup>8)</sup>

5월 5일 이후에는 경련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련은 이 시점에 진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화농’ 시기로 숙종 26년 5월 12일부터이다. 경련이 진정되고 며칠이 지난 5월 12일 통증이 있던 부위에서 마침내 고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의약청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요척 아래 아시혈에 어제 침을 놓은 곳에 오늘 다시 침을 놓으려고 하다가 의녀가 진찰해 보니 현저하게 고름이 생긴 형세가 있다 하니 장차 파종(破腫)해야 함을 아뢰웁니다.<sup>9)</sup>

통증이 계속 있던 부위에서 고름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제 고름 부위를 침으로 찌서 터트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5월 12일 화농처를 파종하였고 5월 13일 파종한 부위에서 고름이 잘 흘러나오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의약청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환후는 야간에 의녀가 와서 전한 말을 듣기로는 우측의 요척 아래 부위를 파종한 후에 고름이 누차 순조롭게 흘러나오고 있으나 기력은 곤뇌하고 다리의 통증은 아직 그치거나 덜하지 않으며 침수 또한 불안하다고 합니다.<sup>10)</sup>

네 번째 단계는 ‘두 번째 화농’ 시기로 숙종 26년 6월 21일부터이다. 환도혈 외에 새로운 창구(瘡口)가 생겼다. 전부터 통증이 느껴지던 우측 협하(脅下) 부위에서도 고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와서 전한 말을 들으니 중궁전의 환후는 우측 옆구리 아래에 침을 맞은 곳에 현저히 고름 기가 보인다고 하니 이에 파종해야 함을 감히 고하옵니다.<sup>11)</sup>

이 때 실은 앞서 파종한 부위와 우측 협하 부위에서는 이미 고름이 가득 차서 손으로 만지면 피부와 근육이 서로 분리되는 느낌이 들 지경이었다.

약방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진찰한 후 와서 전한 말을 들으니 중궁전의 환후는 우측 옆구리 아래의 통증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종기를 터트린 곳의 몇 치 아래 부위가 높게 부어 있어서 손으로 누르면 피부와 근육이 서로 분리되고 통증을 견디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신 등이 여러 어의와 상의한 바로는 이는 종기의 독이 응체되어 있다가 주위로 퍼져 고름이 아래로 흘러들어난 소치입니다.<sup>12)</sup>

6) 숙종 26년 4월 14일 12번째 계 : 藥房都提調以下, 啓曰, 卽伏聞醫女所傳之言, 中宮殿, 自初昏, 有脚部筋脈跳動之症, 至於渾身戰掉, 臣等不勝驚惶, 來詣閣門外矣.  
7) 숙종 26년 5월 3일 3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患, 伏聞醫女所傳之言, 夜間脚部痛勢尤甚, 筋脈跳動, 亦至五·六次云. 臣等伏不勝憂煎之至.  
8) 숙종 26년 5월 5일 5번째 계 : 再啓曰, 卽伏聞入診醫女來傳之言, 中宮殿症患, 自天明後, 脚部痛勢稍減, 筋脈跳動之候, 時不發作云.

9) 숙종 26년 5월 12일 7번째 계 : 議藥廳口傳啓曰, 中宮殿症患, 腰脊下阿是穴, 昨日受鍼處, 今日更將受鍼, 醫女診察, 則顯有成膿之形, 卽將破腫云矣.  
10) 숙종 26년 5월 13일 4번째 계 : 議藥廳啓曰, 中宮殿症患, 伏聞夜間醫女來傳之言, 右邊腰脊下破腫後, 膿汁屢次順出, 而氣候困惱, 脚部痛勢, 猶未止歇, 寢睡亦不安云.  
11) 숙종 26년 6월 21일 15번째 계 : 藥房口傳啓曰, 中宮殿症患, 卽伏聞醫女來傳之言, 右脅下受鍼之際, 頗有膿氣云, 仍爲破腫之意, 敢啓.

우측 협하 부위에 고름이 보이는 부위도 침으로 찌서 터트렸고 이 부위에서도 고름이 순조롭게 흘러 나왔다. 하지만 하나였던 창구(瘡口)가 두 개로 늘어난 셈이고 또 환부 주변의 붓기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한 말을 듣기로는 중궁전의 환후는 새로 파종한 부위에서 고름이 한결같이 순조롭게 나오고 있고, 예전에 종기를 터트린 부위에서는 고름이 자못 감소하였으며 몇 치 아래 부위에 높게 부은 곳은 아직 붓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예전의 종기가 터진 부위에서 몇 치 아래 부위에 높게 부은 부위를 다시 진찰해 보니 통증 정도가 약간 줄어든 듯 하나 붓기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피부와 근육이 서로 분리된 것이 전에 비해 범위가 더 늘어났 습니다.<sup>12)</sup>

다섯 번째 단계는 ‘복통, 구토, 설사’의 시기로 숙종 26년 6월 말에서 숙종 27년 7월 초까지이다. 환도혈 부위와 우측 협하 부위에서 고름을 터트린 이후 인현 왕후의 병세는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환부의 통증과 고름 배출 외에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의 증상이 끊임없이 교대로 나타났다. 복통과 구토가 나타나므로 수라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한 말을 들으니 중궁전의 환후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무른 변을 3번에 걸쳐 보았고 야간의 침수도 불안하고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있었으며 뱃속에서 간간히 미미한 통증이 있었다고 하니 신 등이 걱정을 이기지 못할 지경입니다.<sup>13)</sup>

12) 숙종 26년 6월 21일 : 再啓曰, 卽伏聞入診醫女所傳之言, 中宮殿 症患, 右脅下痛勢, 一樣作苦, 腫口下數寸許浮高處, 以手按之, 則皮肉相離, 疼痛難堪, 臣等與諸御醫商議, 則以爲, 此由於腫 毒壅滯旁肆, 膿汁侵漸下流之致.  
13) 숙종 26년 6월 23일 3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患, 伏聞 醫女所傳之言, 新破腫處膿汁, 一向順出, 舊腫口則膿汁頓減, 而其下數寸許浮高, 尙未消散云. 再啓曰, 卽伏聞入診醫女所傳之言, 中宮殿舊腫口下數寸許浮高處, 更爲診察, 則痛勢雖似減歇, 而浮氣尙未消散, 皮肉相離處, 比前漸廣云.  
14) 숙종 26년 6월 24일 3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患, 伏聞 醫女所傳之言, 自昨日夕至今曉, 又下滑便三次, 夜間寢睡, 不至 全然不安, 而睡覺時, 則連有呻吟之聲, 腹中間間微痛云, 臣等伏 不勝悶慮之至.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한 말을 들으니 중궁전의 증후는 어제 올린 수라는 5흡이고 락죽과 미음은 각 3흡이며 야간에 무릎의 통증이 심하였기에 침수가 편안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종기가 터진 곳에서 고름이 많이 나와서 신 등이 엎드려 걱정됨을 이기지 못할 지경입니다.<sup>15)</sup>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한 말을 들으니 중궁전의 환후는 어제 새벽부터 변열의 징후가 있어 금은 화차에 우황 2푼을 함께 올렸고 수라를 매번 드시기 괴로워 하여 단지 타락죽 1흡과 백감죽 6흡 만을 올렸으며 오후에는 메스꺼운 기가 있더니 모두 토하였습니다.<sup>16)</sup>

약방에서 다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다리의 통증이 지금 가장 괴로운 증상입니다. 의녀가 전한 말을 듣기로는 어제 환도혈 근처에서 더욱 통증이 있어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sup>17)</sup>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의녀가 전한 말을 들으니 중궁전의 증후는 어제 올린 수라가 1흡이고 백죽이 6흡이며 신성주와 육미를 또한 올렸는데 저녁 무렵에 구토로 인하여 거의 모두를 토해내었고 뱃속이 편안하지 못하여 설사를 4차례 하였습니다. 야간에 올린 녹두죽이 7승 7흡이며 피부의 열이 심하고 다리와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침수가 잠들었다 깨었다 하면서 편안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sup>18)</sup>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흉격비색(胸膈痞塞)’의 시기로 숙종 27년 7월 8일부터 사망하는 8월 14일까지이다. 1년 여 시간을 환부의 통증과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다가 숙종 27년 7월 초에

15) 숙종 26년 11월 23일 4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候, 伏聞 醫女來傳之言, 昨日所進水刺五合, 酪粥·米飲, 各三合, 夜間膝 部痛候苦劇, 以此寢睡全然不安, 四更以後, 始得少定, 曉頭暫 時入睡. 腫口膿汁, 一向多出, 臣等伏不勝憂悶之至.  
16) 숙종 26년 12월 18일 3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候, 伏聞 醫女來傳之言, 昨日自早朝, 有煩熱之候, 金銀花茶, 調進牛黃二分, 水刺每然厭苦, 只進酪粥一合, 白甘粥六合. 午後因惡心, 盡爲 嘔吐.  
17) 숙종 27년 2월 24일 4번째 계 : 藥房再啓曰, 中宮殿脚部痛候, 爲卽今最悶之症, 而伏聞醫女所傳之言, 自昨日環跳穴近處, 尤 爲酸疼, 有難堪忍云.  
18) 숙종 27년 6월 23일 3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候, 伏聞 醫女來傳之言, 昨日所進水刺一合, 白粥六合, 神聖酒肉味, 亦爲進御, 而夕間, 因嘔氣, 幾盡吐出, 腹中不便, 滑便至於四度, 夜間所進菘豆粥一升七合, 而肌體頗熱, 脚膝酸痛, 寢睡乍睡乍覺, 不得安穩云.

이르러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에 이른다. 여전히 구토와 복통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더하여 상복부의 상완혈 부위에 무엇인가 고여 있는 듯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증후는 의녀가 전한 말을 듣기로는 어제 야간의 침수는 전날보다는 약간 나왔고 구토는 다시 생기지 않았으며 복부의 불편한 증상 또한 약간 덜한 듯 한데 상완혈 근처에서 뭉가가 고이고 모인 듯한 형상이 있어 손으로 눌러보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sup>19)</sup>

이 증상은 점차 흉격이 막히고 답답한 증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수족궤냉의 증세가 연이어 나타났다.

약방이 함문 밖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환후는 흉격이 답답하고 막힌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고 합니다.<sup>20)</sup>

약방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증후는 의녀가 와서 전한 말을 듣기로는 해가 진 이후 흉격이 답답하고 막힌 증세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안정되었으나 야간의 침수가 불안하였고 설사가 10여 차례 있었고 손발이 때로 싸늘해졌고 이에 증세가 모두 위중해졌다고 합니다.<sup>21)</sup>

그리고 며칠 후 흉격의 답답한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구강에 부스럼이 생기고 소변이 막히는 증세도 연이어 나타났다.

의약청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증후는 의녀가 와서 전한 말을 듣기로는 야간에 다리가 아프고 침수가 불안하며 입과 혀에 부스럼이 생기고 소변이 붉은 색이며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증상이 있는데 이는 심(心)과 위(胃)에 뭉친 열로 인한 것입니다.<sup>22)</sup>

다음날 의식이 혼미해졌고 맥박 또한 불규칙해졌다.

의약청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중궁전의 증후는 의녀가 와서 전한 말을 듣기로는 야간에 신기가 혼미하여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맥도의 숫자는 3번 도달하고 간혹 중간에 멈추는 대맥의 증후도 보이며 금일 밤에는 더욱 미미한 맥이 떴으며 이마와 허리에서 식은땀이 나니 병세가 위중합니다.<sup>23)</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4일 왕비는 사망하고 만다.

3경 1점에 의녀가 의약청에 와서 아뢰기를 중궁전의 증후가 호흡을 헐떡였는데 그 소리가 점차 낮아진다고 합니다.<sup>24)</sup>

대행왕비가 창경궁의 경춘전에서 승하하였으니 이 때가 4경 1점 축시 초각이었다.<sup>25)</sup>

### 3. 치료법에 관한 기록

인현왕후를 가장 가까이서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은 의녀(醫女)가 담당하였다. 먼저 의녀가 왕비의 상태를 진찰하여 의관에게 보고하면 의관은 이를 토대로 함께 모여 치료를 의논한 후 이를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적절한 처방이나 처치를 시행하였다. 만약 의녀가 보고하는 내용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관이 직접 진찰을 하기도 하였다.<sup>26)</sup> 혹은 내의원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부의 인사를 초빙하여 직접 진찰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sup>27)</sup> 그리고 왕비의

19) 숙종 27년 7월 8일 3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候, 伏聞醫女來傳之言, 昨日, 夜間寢睡, 稍勝於前夜, 嘔吐更不發作, 腹部不平之候, 亦似稍減, 而上腕近處, 有停聚之狀, 按之作痛云.  
20) 숙종 27년 8월 4일 16번째 계 : 藥房詣閣門外, 以承傳色口傳啓曰, 中宮殿患候, 胸膈痞塞之症, 猝重云.  
21) 숙종 27년 8월 5일 4번째 계 : 藥房啓曰, 中宮殿症候, 伏聞醫女來傳之言, 昏後有胸膈痞塞之候, 移時乃定. 夜間寢睡不安, 便道滑泄十餘度, 手足時或厥冷, 症勢一向沈篤云.  
22) 숙종 27년 8월 12일 3번째 계 : 議藥廳啓曰, 中宮殿症候, 伏聞醫女來傳之言, 夜間脚部疼痛, 寢睡不安, 口舌生瘡, 小便赤澀等症, 乃是心胃壅熱之致.

23) 숙종 27년 8월 13일 5번째 계 : 議藥廳啓曰, 中宮殿症候, 伏聞醫女來傳之言, 夜間神氣, 昏昏不能收拾, 脈度自數三日來, 有止代之候, 今夜尤似微伏, 額上及腰部有冷汗, 症勢危重云.  
24) 숙종 27년 8월 13일 34번째 계 : 三更一點, 醫女來言于議藥廳曰, 中宮殿症候, 呼吸過促, 而響漸低微云.  
25) 숙종 27년 8월 14일 17번째 계 : 大行王妃昇遐于昌慶宮之景春殿, 時四更一點丑初初刻也.  
26) 숙종 27년 1월 22일 6번째 계에 의하면 의관과 의녀가 함께 입진하여 침을 놓을 혈자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3월 9일, 3월 21일, 3월 28일, 4월 16일, 5월 8일에도 어의, 침의, 수의가 직접 입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7) 숙종 26년 11월 22일 5번째 계에 의하면 백광린(白光璘)과 백흥령(白興齡)은 내의원 소속이 아니고 군직(軍職)에 있었지만 관대를 하고 입진하도록 하였다.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한 상황이 되면 임시기구인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하였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인현왕후의 투병기간 중에 총 4번에 걸쳐 의약청이 설치되었다.<sup>28)</sup> 의약청이 설치되면 소속된 어의, 내의, 침의 등이 모여 위급한 왕비의 증세를 함께 논하였고 증세가 호전되면 의약청은 파하여졌다.

이제 각 단계별로 의관들이 치료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첫 번째 단계였던 ‘통증의 시작’ 시기에 의관들이 내린 진단명은 통풍(痛風)이었다. 왕비가 호소한 주증상이 환도혈 주위, 즉 고관절의 통증이었기에 이를 습열이 아래로 흘러와 경락에서 막혀서 발생한(濕熱下流 經絡壅滯) 통풍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통경락(宣通經絡)할 수 있는 치료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처방으로는<sup>29)</sup> 가미패독산(加味敗毒散)<sup>30)</sup>, 소경활혈탕(疎經活血湯)<sup>31)</sup>, 진사육일산(辰砂六一散)<sup>32)</sup>, 시호쌍해산(柴胡雙解散)<sup>33)</sup>, 가미창백산(加味蒼柏散)<sup>34)</sup> 등의 처방이 투여되었다. 통증이 주된 증상이었지만 때로는 발열이나 오심, 구토의 증상도 동반되었기에 이를 위해 강다탕(薑茶湯)<sup>35)</sup>, 굴치죽여탕(橘樞竹茹湯)<sup>36)</sup>, 시령탕(柴苓湯)<sup>37)</sup>과 같은 처방도 투여되었다. 혹은 통증과 구토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간담(肝膽)의 목기(木氣)와 담음이 함께 있는 소치로 진단을 내려서 시호육군자탕(柴胡六君子湯)<sup>38)</sup>을 처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열왕래의 증세가 있으면서 야간에 통증이 더욱 심하므로 이를 음분(陰分)에 열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내려서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sup>39)</sup>을 처방하기도 하였다.

침법으로는 태충, 함곡, 절골에 침을 놓거나<sup>40)</sup> 절골, 환도, 삼리, 승산에 침을 놓았고<sup>41)</sup> 때로는 아시혈 부위에

침을 놓는 방법도 선택되었다.<sup>42)</sup> 뜸법으로는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를 선택하여 이곳에 뜸을 폈다.<sup>43)</sup> 약차(藥茶) 처방도 함께 내려졌는데 목통차(木通茶)에 우황을 가하여 올렸다<sup>44)</sup>. 외치법으로는 환부에 상륙근을 찢어서 붙이는 방법을 썼다.<sup>45)</sup>

두 번째 단계인 ‘경련의 시작’ 시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통증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경련 뿐만 아니라 구토나 번열의 증상까지 함께 나타났다. 경련에 대해서는 의관들이 상당히 걱정하였으나 경련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진단을 따로 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환도혈 부위에서 나타나던 통증이 슬부에서도 나타나므로 이를 통풍의 유주작통(流注作痛)으로 보았고 또 족부에서부터 하지를 걸쳐 하복부에까지 붓기가 나타났으므로 이를 습열 혹은 습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방으로는 유기음자(流氣飲子)<sup>46)</sup>, 청열시습탕(淸熱瀉濕湯)<sup>47)</sup>, 소경활혈탕(疎經活血湯)<sup>48)</sup>, 삼화산(三和散)<sup>49)</sup>, 서각음(犀角飲)<sup>50)</sup> 등을 투여하였다. 구토 증상이 심한 날에는 사물탕합이진탕(四物湯合二陳湯)<sup>51)</sup>, 굴치죽여탕(橘樞竹茹湯)<sup>52)</sup>, 청열이진탕(淸熱二陳湯)<sup>53)</sup> 등을 투여하였다.

침법으로는 태충, 절골, 삼리<sup>54)</sup> 혹은 행간, 삼음교, 양릉천<sup>55)</sup>에 침을 놓거나 아시혈에 침을 놓았다.<sup>56)</sup> 뜸법으로는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에 격산구(隔蒜灸)<sup>57)</sup>를 하였다. 약차 처방으로는 금은화차(金銀花茶)에 우황을 가하여 올렸다.<sup>58)</sup> 식치(食治) 처방으로 변비가 나타난 날에 삼인죽(三仁粥)<sup>59)</sup>을 올렸다.

28) 의약청이 설치된 기간은 숙종 26년 4월 2일~7일, 5월 6일~19일, 11월 22일~12월 16일, 27년 8월 5일~14일이다.  
 29) 처방에 가감이 된 경우도 많으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가감은 생략하고 처방의 이름만 기재한다.  
 30) 숙종 26년 3월 26일 5번째 계 외 2회 등장  
 31) 숙종 26년 3월 29일 7번째 계 외 1회 등장  
 32) 숙종 26년 3월 30일 6번째 계  
 33) 숙종 26년 4월 5일 4번째 계  
 34) 숙종 26년 4월 10일 6번째 계  
 35) 숙종 26년 3월 30일 7번째 계  
 36) 숙종 26년 3월 30일 8번째 계  
 37) 숙종 26년 4월 1일 13번째 계  
 38) 숙종 26년 4월 6일 7번째 계 외 1회 등장  
 39) 숙종 26년 4월 14일 3번째 계  
 40) 숙종 26년 3월 26일 5번째 계

41) 숙종 26년 3월 28일 6번째 계  
 42) 숙종 26년 3월 29일 7번째 계  
 43) 숙종 26년 4월 10일 6번째 계  
 44) 숙종 26년 3월 26일 11번째 계  
 45) 숙종 26년 4월 2일 5번째 계  
 46) 숙종 26년 4월 24일 5번째 계 외 2회 등장  
 47) 숙종 26년 4월 28일 5번째 계 외 3회 등장  
 48) 숙종 26년 5월 5일 5번째 계  
 49) 숙종 26년 5월 6일 4번째 계 외 3회 등장  
 50) 숙종 26년 5월 12일 5번째 계  
 51) 숙종 26년 4월 17일 9번째 계  
 52) 숙종 26년 4월 22일 4번째 계  
 53) 숙종 26년 4월 23일 11번째 계  
 54) 숙종 26년 4월 17일 9번째 계  
 55) 숙종 26년 4월 26일 5번째 계  
 56) 숙종 26년 4월 20일 5번째 계  
 57) 숙종 26년 5월 6일 4번째 계  
 58) 숙종 26년 4월 28일 5번째 계

세 번째 단계인 ‘첫 번째 화농’ 시기에는 통증이 심하던 부위에서 고름이 보이므로 이제 병명은 옹저(癰疽)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투여하는 처방 역시 옹저에 쓰이는 처방으로 바뀌었다.

처방으로는 탁리(托裏)시키는 처방인 인삼황기탕(人蔘黃芪湯)<sup>60</sup>과 탁리소독음(托裏消毒飲)<sup>61</sup>을 이 시기에 주로 투여하였다. 그리고 옹저의 독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호막생기(護膜生肌)의 효과가 있는 납반환(蠟攀丸)<sup>62</sup>도 투여하였다. 또한 옹저를 터트린 부위에서 계속해서 고름이 흘러나왔으므로 수공만전탕(收功萬全湯)<sup>63</sup>이나 가감생맥산(加減生脈散)<sup>64</sup> 등의 처방을 투여하였다. 이 시기에도 구토 증상이 나타났기에 옹저에 위기(胃氣)가 허약하여 담음이 생길 때 쓰는 처방인 육군자탕(六君子湯)<sup>65</sup>을 투여하였다. 그리고 옹저를 터트린 부위가 계속 아물지 않기에 수렴하는 효능이 있는 사유환(蛇油丸)<sup>66</sup>을 처방하였다. 수라를 잘 들지 못하였기에 이를 6월 달의 더위 때문으로 보아 청서육화탕(淸暑六和湯)<sup>67</sup>을 처방한 경우도 있었다.

침법으로는 화농된 부위를 파종(破腫)<sup>68</sup>하였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피침(鉞針)을 이용하여 파종하였으리라 본다. 또한 파종한 부위에 지침(紙針)을 삽입하여 농을 빨아들이는 방법을 썼다.<sup>69</sup> 외치법으로는 사향고(麝香膏)<sup>70</sup>를 옹저 부위에 삽입하는 방법을 썼다. 또 붓기가 보이는 부위에 소독고(消毒膏)<sup>71</sup>를 발랐고

고름이 나오는 부위에 찹쌀밥(糯米飯)<sup>72</sup>을 붙였다. 약차 처방으로는 삼차(蔘茶)<sup>73</sup>, 동변강차(童便薑茶)<sup>74</sup> 등을 올렸는데 구토로 인해 수라를 제대로 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 단계인 ‘두 번째 화농’ 시기에는 며칠 전부터 통증이 나타나던 우측 협하(脅下) 부위에서 새로운 화농처가 나타났기에 이곳을 파종하게 되었다. 환도혈 근처는 구종구(舊腫口)가 되고 협하 부위는 신종구(新腫口)가 된 것이다. 고름이 나오는 곳이 이제 2군데가 되었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고름이 흘러나왔다. 통증 또한 계속되었고 간혹 발열도 있었다. 이 시기는 옹저가 터진 후에 농수가 많이 나오는(癰疽膿水出多) 것을 치료하는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처방으로는 생맥산(生脈散)<sup>75</sup>, 이공산(異功散)<sup>76</sup>,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sup>77</sup>, 탁리소독음(托裏消毒飲)<sup>78</sup> 등을 투여하였다. 약차로는 삼차(蔘茶)에 황기나<sup>79</sup>, 백복령을 가하여<sup>80</sup> 올렸고 발열이 있을 때에는 인동차(忍冬茶) 혹은 금은화차(金銀花茶)에 우황을 가하여<sup>81</sup> 올렸다.

침법으로는 우측 협하의 화농처를 파종했으며<sup>82</sup>, 아시혈에 침을 놓거나<sup>83</sup>, 종구(腫口)에 부항구법(付缸灸法)<sup>84</sup>이라고 하여 삼릉침으로 4~5 차례 찌른 후 부항에 쑥을 태워 음압을 형성시킨 후 환부에 부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sup>85</sup> 또한 상지(桑枝)를 이용한 점락법(點烙法)<sup>86</sup>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59) 숙종 26년 5월 1일 6번째 계  
 60) 숙종 26년 5월 12일 10번째 계 외 7회 등장  
 61) 숙종 26년 5월 13일 4번째 계 외 8회 등장  
 62) 숙종 26년 5월 23일 8번째 계  
 63) 숙종 26년 5월 25일 4번째 계 외 2회 등장  
 64) 숙종 26년 5월 26일 3번째 계 외 1회 등장  
 65) 숙종 26년 5월 29일 3번째 계 외 2회 등장  
 66) 숙종 26년 6월 10일 4번째 계 / 사유환은 여염과 사대부 사이에서 이미 많이 효과를 보았다고 하여 왕비에게도 투여된 것으로 이는 민간의 의학이 왕실에까지 전파된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67) 숙종 26년 6월 13일 5번째 계 / 청서육화탕을 처방한 것은 증세 뿐만 아니라 계절에 대한 고려도 함께 처방 선택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68) 숙종 26년 5월 12일 10번째 계  
 69) 숙종 26년 5월 16일 5번째 계  
 70) 숙종 26년 5월 25일 4번째 계 외 1회 등장 / 사향고는 건갈, 구담, 옹담, 용뇌, 석용황, 우황, 유황, 사향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홍서구(洪瑞龜)란 자가 종기를 잘 치료하기로 유명한데 이 사향고로 여염과 사대부 사이에서 효과를 많이 보았기에 왕비에게도 투여가 된 것이다. 이 역시 민간의 의학이 왕실에까지 전파된 예이다.

71) 숙종 26년 5월 27일 4번째 계 외 2회 등장  
 72) 숙종 26년 6월 2일 9번째 계 외 1회 등장  
 73) 숙종 26년 6월 8일 6번째 계 외 2회 등장  
 74) 숙종 26년 6월 15일 6번째 계  
 75) 숙종 26년 6월 22일 4번째 계 외 1회 등장  
 76) 숙종 26년 6월 23일 17번째 계 외 2회 등장  
 77) 숙종 26년 7월 6일 4번째 계  
 78) 숙종 26년 7월 11일 3번째 계 외 1회 등장  
 79) 숙종 26년 6월 22일 4번째 계  
 80) 숙종 26년 6월 23일 3번째 계  
 81) 숙종 26년 7월 9일 3번째 계 외 3회 등장  
 82) 숙종 26년 6월 21일 15번째 계  
 83) 숙종 26년 6월 23일 3번째 계  
 84) 숙종 26년 7월 7일 7번째 계  
 85) 박문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p.62에 의하면 이 부항구법(付缸灸法)은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기록된 것으로 그 방법에 대해 “用體長缸, 以缸口以手三指容入, 乃能吸毒也. 隨其痛, 每一處, 以三陵針刺四五穴, 并入缸口內, 付缸灸七次, 隨痛隨針, 亦付缸灸, 累次神效.” 라고 적혀 있다.

다섯 번째 단계인 ‘복통, 구토, 설사’의 시기에는 기존의 고관절과 슬관절의 통증 및 고름배출 외에도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식욕부진, 불면, 환부의 부종 등의 증상이 1년 간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름이 계속 나오고 설사도 심하며 게다가 식사량도 현격히 줄어들었기에 이를 기혈이 허한 것으로 보아 보법에 해당하는 처방이 이 시기에 주로 투여되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수라의 양이 줄어들어 탕약 외에도 약차(藥茶)와 약주(藥酒) 및 죽(粥)과 같은 식치 처방이 빈번하게 올려지기도 하였다.

보하는 처방으로는 오미탕(五味湯)<sup>87</sup>,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sup>88</sup>, 삼귀하거환(參歸阿車丸)<sup>89</sup>, 팔물탕(八物湯)<sup>90</sup>, 가미납반환(加味蠟攀丸)<sup>91</sup>, 생맥산(生脈散)<sup>92</sup>,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sup>93</sup>, 독삼탕(獨參湯)<sup>94</sup>, 탁리청중탕(托裏淸中湯)<sup>95</sup>, 인삼황기탕(人蔘黃芪湯)<sup>96</sup>, 탁리소독음(托里消毒飲)<sup>97</sup>, 탁리화중탕(托裏和中湯)<sup>98</sup>, 가감팔미탕(加減八味湯)<sup>99</sup>, 삼물산(三物散)<sup>100</sup> 등이 투여되었다.

불면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진사익원산(辰砂益元散)<sup>101</sup>을 올렸다. 구토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육군자탕(六君子湯)<sup>102</sup>, 굴피죽여탕(橘皮竹茹湯)<sup>103</sup>, 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sup>104</sup>, 가미불환금정기산(加味不換金正氣散)<sup>105</sup> 등을 올렸다. 복통이 있을 때에는 이중탕(理中湯)<sup>106</sup>, 반충선(蟠葱散)<sup>107</sup>, 청서육화탕(淸暑六和湯)<sup>108</sup> 등을 투여하였고 설사가

심할 때에는 이공산(異功散)<sup>109</sup>, 익원산(益元散)<sup>110</sup> 등을 처방하였다. 관절의 통증이 심할 때에는 추풍통기산합이진탕(追風痛氣散合二陳湯)<sup>111</sup>, 십육미류기음(十六味流氣飲)<sup>112</sup>, 청간해울탕(淸肝解鬱湯)<sup>113</sup> 등을 올렸다. 발열이 심할 때에는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sup>114</sup>, 승양산화탕(升陽散火湯)<sup>115</sup> 등을 투여하였고 식욕부진에 대해서는 성비육위탕(醒脾育胃湯)<sup>116</sup>을 처방하였다.

침법으로는 아시혈에 침을 놓는 법<sup>117</sup>을 주로 사용하였다. 뜸법으로는 아시혈에 뜸을 뜨는 방법<sup>118</sup>, 상지(桑枝)를 이용한 점락법(點烙法)<sup>119</sup>, 상륙구(商陸灸)<sup>120</sup>와 같은 방법을 썼다. 외치법으로는 초마자(草麻子)를 으깨어 환부에 붙이는 방법<sup>121</sup>, 총위법(蔥熨法)<sup>122</sup>, 훈위법(薰熨法)<sup>123</sup>, 원지고(遠志膏)<sup>124</sup>, 소독고(消毒膏)<sup>125</sup>, 신응고(神應膏)<sup>126</sup>, 황납고(黃蠟膏)를 바르는<sup>127</sup> 방법을 사용하였다.

약차로는 기혈이 허한 것을 고려하여 주로 삼차(參茶)<sup>128</sup>를 많이 올렸고, 발열이 있을 때에는 인동차(忍冬茶) 혹은 금은화차(金銀花茶)에 우황을 가하여 올렸으며<sup>129</sup>, 구토가 있을 때에는 호초차(胡椒茶)<sup>130</sup>를 올렸다. 약주(藥酒)로는 신성주(神聖酒)<sup>131</sup>를, 죽(粥)으로는 인삼숙미음(人蔘粟米飲)<sup>132</sup>, 타락죽(駝酪粥)<sup>133</sup>,

86) 숙종 26년 7월 16일 5번째 계  
87) 숙종 26년 7월 27일 4번째 계  
88) 숙종 26년 7월 29일 4번째 계 외 6회 등장  
89) 숙종 26년 7월 29일 4번째 계  
90) 숙종 26년 8월 23일 3번째 계  
91) 숙종 26년 11월 10일 4번째 계  
92) 숙종 26년 11월 12일 4번째 계 외 48회 등장  
93) 숙종 26년 11월 16일 5번째 계 외 2회 등장  
94) 숙종 26년 11월 24일 7번째 계 외 3회 등장  
95) 숙종 27년 2월 1일 3번째 계 외 1회 등장  
96) 숙종 27년 2월 20일 4번째 계 외 2회 등장  
97) 숙종 27년 3월 9일 10번째 계  
98) 숙종 27년 4월 6일 3번째 계  
99) 숙종 27년 4월 17일 5번째 계  
100) 숙종 27년 5월 15일 6번째 계  
101) 숙종 26년 7월 29일 4번째 계 외 3회 등장  
102) 숙종 26년 7월 25일 5번째 계 외 5회 등장  
103) 숙종 26년 8월 13일 2번째 계 외 1회 등장  
104) 숙종 26년 9월 5일 13번째 계  
105) 숙종 27년 1월 7일 5번째 계  
106) 숙종 26년 9월 7일 6번째 계  
107) 숙종 26년 9월 8일 7번째 계

108) 숙종 27년 6월 2일 3번째 계 외 5회 등장  
109) 숙종 27년 2월 4일 4번째 계 외 10회 등장  
110) 숙종 27년 5월 24일 4번째 계 외 18회 등장  
111) 숙종 26년 10월 18일 5번째 계  
112) 숙종 26년 11월 9일 4번째 계  
113) 숙종 27년 3월 3일 4번째 계  
114) 숙종 26년 12월 4일 5번째 계  
115) 숙종 27년 4월 10일 4번째 계  
116) 숙종 27년 2월 9일 5번째 계  
117) 숙종 26년 7월 22일 17번째 계  
118) 숙종 26년 9월 5일 13번째 계  
119) 숙종 26년 7월 21일 12번째 계  
120) 숙종 26년 10월 17일 4번째 계  
121) 숙종 26년 9월 23일 5번째 계  
122) 숙종 26년 11월 10일 4번째 계  
123) 숙종 27년 2월 20일 4번째 계  
124) 숙종 26년 11월 17일 4번째 계  
125) 숙종 26년 11월 19일 5번째 계  
126) 숙종 27년 2월 14일 4번째 계  
127) 숙종 27년 2월 20일 4번째 계  
128) 숙종 26년 7월 21일 12번째 계 외 65회 등장  
129) 숙종 26년 7월 25일 5번째 계 외 61회 등장  
130) 숙종 26년 9월 6일 6번째 계  
131) 숙종 27년 5월 15일 6번째 계 외 31회 등장  
132) 숙종 26년 7월 25일 5번째 계 외 16회 등장  
133) 숙종 26년 9월 1일 2번째 계 외 4회 등장



녹두죽(菉豆粥)<sup>134</sup>, 백감죽(白甘粥)<sup>135</sup>, 양원죽(養元粥)<sup>136</sup>을 올렸다.

여섯 번째 단계인 ‘홍격비색’의 시기에는 기존의 증상에 더하여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새로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때 투여되는 처방은 보약과 대증처방약 및 응급처치약이다.

처방으로는 홍격비색을 풀기 위해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sup>137</sup>, 진사익원산(辰砂益元散)<sup>138</sup>, 육군자탕(六君子湯)<sup>139</sup>, 칠미백출산(七味白朮散)<sup>140</sup> 등이 투여되었다. 보하는 처방으로 삼령갱미음(蔘苓梗米飲)<sup>141</sup>, 생맥산(生脈散)<sup>142</sup>, 경옥고(瓊玉膏)<sup>143</sup> 등이 처방되었다. 그리고 사망 직전 홍격의 비색이 극도로 심해지고 구강에 부스럼이 생기며 소변적삽(小便赤澁)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치굴탕(樞樞湯)<sup>144</sup>과 이열탕(移熱湯)<sup>145</sup>을 처방하였고 사망 하루 전 수족궤냉이 나타났을 때에는 삼부탕(蔘附湯)<sup>146</sup>을, 호흡곤란이 왔을 때에는 청심원(淸心元)<sup>147</sup>을 처방하였다.

뜸법으로는 상완<sup>148</sup>이나 중완<sup>149</sup>에 뜸을 뒀다. 약차로는 인삼맥문동차(人蔘麥門冬茶)<sup>150</sup>, 삼차(蔘茶)<sup>151</sup>를 올렸고 죽(粥)으로는 의이인죽(薏苡粥)<sup>152</sup>, 녹두죽(菉豆粥)<sup>153</sup>, 양원죽(養元粥)<sup>154</sup>, 어미죽(御米粥)<sup>155</sup>, 설요죽(雪糕粥)<sup>156</sup>을 올렸다.

134) 숙종 27년 2월 22일 4번째 계 외 109회 등장  
 135) 숙종 27년 2월 24일 3번째 계 외 42회 등장  
 136) 숙종 27년 5월 26일 4번째 계 외 4회 등장  
 137) 숙종 27년 7월 8일 3번째 계 외 1회 등장  
 138) 숙종 27년 7월 17일 4번째 계 외 4회 등장  
 139) 숙종 27년 7월 20일 5번째 계 외 1회 등장  
 140) 숙종 27년 8월 2일 4번째 계 외 1회 등장  
 141) 숙종 27년 7월 24일 4번째 계 외 1회 등장  
 142) 숙종 27년 7월 10일 3번째 계 외 2회 등장  
 143) 숙종 27년 8월 8일 4번째 계 외 1회 등장  
 144) 숙종 27년 8월 11일 6번째 계  
 145) 숙종 27년 8월 12일 3번째 계  
 146) 숙종 27년 8월 13일 5번째 계  
 147) 숙종 27년 8월 13일 34번째 계  
 148) 숙종 27년 7월 9일 3번째 계  
 149) 숙종 27년 7월 21일 4번째 계  
 150) 숙종 27년 7월 9일 3번째 계  
 151) 숙종 27년 8월 3일 4번째 계 외 13회 등장  
 152) 숙종 27년 7월 11일 4번째 계 외 22회 등장  
 153) 숙종 27년 7월 14일 3번째 계 회 6회 등장  
 154) 숙종 27년 8월 5일 4번째 계 외 10회 등장  
 155) 숙종 27년 8월 7일 6번째 계  
 156) 숙종 27년 8월 9일 25번째 계 외 4회 등장

#### 4. 고찰

인현왕후의 병명은 용저(癰疽)였다. 의관들은 처음 발병했을 때의 증상인 환도혈의 통증을 통풍으로 진단을 내렸지만 실은 이는 용저욕발지후(癰疽欲發之候), 즉 용저의 초기증상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에서는 “무릇 발열과 오한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우며 힘이 당기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갈증이 여러 해 있었던 경우라면 이는 모두 용저가 생기려고 하는 증상이다. 모든 맥이 부삭(浮數)할 때에는 마땅히 열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오한이 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이는 용저가 생기려고 하는 것이다.”<sup>157)</sup>라고 하여 용저가 생길 때 나타나는 초기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현왕후는 초기에 환도혈의 심한 통증 외에도 발열과 한열왕래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통증의 시작’ 시기에 바로 용저가 생기려고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초기증상들이 보였던 것이다.

인현왕후의 용저에 대해 더 구체적인 병명을 내려보자. 용(癰)이란 피육과 같이 비교적 천부에 생기는 것이고 저(疽)란 근골과 같이 비교적 심부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관절이 위치한 환도혈 근처에서 생긴 용저는 비교적 깊은 곳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현왕후의 병은 용저 중에서도 환도저(環跳疽)라고 볼 수 있다. 환도저란 병명은 『동의보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 발간된 『인제지(仁濟志)』에 가서야 환도저란 병명을 찾아볼 수 있다.<sup>158)</sup>

인현왕후에게 용저가 생긴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의서에서는 용저가 생기는 것에 대해 칠정(七情)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소갈병이 오래되면 반드시 용저(癰疽)나 정창(疔瘡)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sup>159)</sup>라고 하였고 또한 “용저는 기(氣)가 울체되어서 생기는 것이다. 기(氣)가 경락에서 막혀서 혈(血)과 함께 잘 돌지 못하면 응결되어서 용저가 되는데 이는 칠정(七情)으로 인하여

157) 허준. 『동의보감』. 잡병편, 용저문 : 癰疽欲發之候, 凡發熱憎寒, 頭痛惡心, 筋脈拘牽, 氣急煩悶, 或病渴多年, 是皆欲發癰疽之證也. 諸脈浮數, 應當發熱, 而反洒淅惡寒, 若有痛處, 當發其癰.  
 158) 서유구. 『인제지』. 20권. 외과, 股陽疽 附環跳疽 : 環跳疽, 生胯骨節間之環跳穴中, 所以腰難屈伸漫腫隱痛也.  
 159) 허준. 상계서. 잡병편, 용저문 : 凡鬱抑傷心, 及久患消渴, 必發癰疽疔瘡, 宜慎之.

생기는 것이다”<sup>160</sup>)라고 하였으며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흔히 이런 옹저가 생긴다”<sup>161</sup>)라고 하여서 칠정을 옹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현왕후가 왕실의 일원이 된 후의 그녀의 삶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5세에 왕비로 간택되었으나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24세에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폐위되었으며, 이후 또 다시 불어닥친 당쟁의 소용돌이 끝에 28세에 왕비로 복위되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이 그녀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조선왕조에서 유래 없었던 이 폐위와 복위를 거친 왕비로서의 인생 역정은 결국 정치싸움의 희생이자 도구가 된 결과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현왕후에게 옹저가 생긴 것은 그녀의 인생 역정에서 장기간 느꼈을 불안함, 억울함, 분노 등의 칠정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옹저의 치법에 대해 살펴보자. 옹저가 진행되는 단계는 처음 발병한 초기, 고름이 나타나서 터지는 중기, 그리고 고름이 다 배출된 후 새살이 생기는 말기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발산시키고 사그라지게 하는 소법(消法)을 구사하고, 중기에는 고름을 모두 빼내고 악육(惡肉)을 없애지게 하는 탁법(托法)을 구사하며, 말기에는 새살이 잘 생기게 하는 보법(補法)을 구사하는 것이 옹저의 치료원칙이다.<sup>162</sup>) 그런데 인현왕후의 병정을 살펴보았을 때 초기 통증 단계에서 중기 화농 단계로는 진행이 되었으나, 이후 고름이 모두 빠지고 새살이 생기는 말기 회복 단계로는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고름이 터진 후에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환부에서는 계속해서 고름이 흘러 나왔다. 고름이 빠지고 악육(惡肉)이 사라져야 그 다음 새살이 생기고 아무는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고름이 사라지지 않으니 새살이 생겨서 아무는 회복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인현왕후가 보여준 여러 부가적인 증상들은 옹저의 예후에 있어서 흉증에 속하는 것들이 많았다. 옹저의 예후를 판단할 때 쓰이는 옹저선악증(癰疽善惡證)<sup>163</sup>)에

의하면 5가지 선증(善證) 중에서 3가지가 보이면 회복되고, 9가지 악증(惡證) 중에서 6가지가 보이면 위험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현왕후는 9가지 악증(惡證) 중에서 식사를 못하고 구토하는 것, 복통과 갈증이 심한 것, 사지가 침중한 것, 사지가 붓는 것, 설사가 계속되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 고름이 계속 나오고 통증이 계속되는 것, 숨을 헐떡이고 정신이 맑지 못하고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악증(惡證)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현왕후는 고름과 악육(惡肉)이 사라져야 할 옹저의 중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악증(惡證)이 나타나 결국 회복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현왕후는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여 장기간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흉격비색의 증상을 느끼다 사망하고 만다. 이렇게 옹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중기의 독기가 심장으로 들어오면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며 정신이 마치 술에 취한 듯 몽롱하고 구토가 진정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증상이다. 중기의 독기가 심장과 복부로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이 나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깨어나지 못하니 이는 곧 죽을 수 있다.”<sup>164</sup>)라고 하였다. 이는 환도저의 독기가 복부로 침입하였으므로 장기간 복통, 구토, 설사의 증상이 나타났고, 또 심장으로 침입하였으므로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결국 군주지관에 해당하는 심장에 옹저의 독기가 침입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즉, 인현왕후의 사망원인은 독기(毒氣)의 입심(入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서양의학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고관절 부위에서 화농성 관절염이 생겼고, 이후 뇌수막염까지 생겨 경련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점차 복부로 퍼져 복통, 구토, 설사가 나타나는 복막염이 되고, 마침내는 심장에까지 미쳐 심내막염이 되어 결국 이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과정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便尿調勻二善也。神彩精明語聲清朗三善也。膿清腫消色鮮不臭四善也。體氣和平五善也。眼白睛黑而目緊小一惡也。不能飲食納藥而嘔食不知味二惡也。腹痛渴甚三惡也。肩背不便四肢沈重四惡也。聲嘶色脫唇鼻青黑面目四肢浮腫五惡也。煩躁時嗽泄利無度小便如淋六惡也。膿血大泄焮痛尤甚膿色敗臭氣不可近七惡也。喘咳短氣恍惚嗜臥八惡也。未潰先黑陷下面青唇黑便汚者九惡也。五善見三則吉九逆見六則危。

160) 허준. 상계서. 잡병편, 옹저문 : 癰疽皆因氣鬱而成, 氣宿于經絡, 與血俱澁而不行, 壅結爲癰疽, 此言七情而成.

161) 허준. 상계서. 잡병편, 옹저문 : 憤鬱不遂志欲之人, 多有此疾.

162) 허준. 상계서. 잡병편, 옹저문 : 初覺則散腫內消, 已潰則排膿斂毒, 膿盡則去腐內塞惡肉, 盡則生肌付痂, 此定則也.

163) 허준. 상계서. 잡병편, 옹저문 : 動息自寧飲食知味一善也.

164) 허준. 상계서. 잡병편, 옹저문 : 疔毒入心, 則口乾煩悶, 恍惚似醉, 嘔吐不定, 危證也. 疔毒入心腹, 則煩悶嘔逆, 恍惚癡眠, 其斃可立待也.

당시 내의원 의관들이 구사한 치법을 살펴보자. 각종 탕약과 침구법, 외용제의 도포나 부항법과 같은 각종 외치법, 식치법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한 것은 당시 왕실의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처방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통증의 시작 시기부터 화농이 되기 전까지는 소법(消法)에 해당하는 처방들을 투여하였다. 그리고 화농이 되어 고름이 터져 나온 후부터는 탁법(托法)에 해당하는 처방 위주로 투여하였다. 이러한 처방 구사는 적절해 보이거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는다.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 환도혈과 우측 협하에서 고름이 한창 나오고 있을 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깊은 곳에 위치한 고름을 배출하는 방법을 구사했다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환부를 만지면 피육(皮肉)이 서로 분리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환부 주위는 고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또 사망하는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고름이 나왔던 것은 환부의 깊은 곳에 있던 고름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항구법(付缸灸法)을 실시하여 부항으로 고름을 뽑아 내려는 시도는 하였으나 이는 한두 차례에 그쳤고 대부분 내치법 위주의 치료법을 구사하였다. 이 시기에 고름을 배출할 수 있는 외치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더라면 용저의 독기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 Ⅲ. 결론

이상으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속종 26년 3월 26일에서 27년 8월 14일까지의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 기록을 통해 인현왕후가 어떠한 과정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왕실 의학이 구사한 여러 치료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인현왕후는 환도혈 부근의 통증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련, 화농, 복통, 구토, 설사 등을 거쳐 마침내는 흉격비색과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인현왕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은 용저였고 더 구체적으로는 환도저라고 볼 수 있다. 인현왕후의 고단했던 삶으로

인한 칠정이 용저라는 병을 일으킨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환도혈 부근에서 시작된 용저의 독기는 계속 퍼져 복부와 심장에까지 침입하였고 이로 인한 여러 악증(惡證)이 나타났으며 결국에는 용저의 독기(毒氣)가 입심(入心)한 것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승정원일기』가 전해주는 자세한 기록은 왕실 인물들의 생로병사를 알게 해주고 또 당대 왕실 의학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왕실 인물을 치료한 과정은 곧 왕실 의학이 남긴 의안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승정원일기』를 통해 군왕 뿐만 아니라 여러 왕실 인물들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과제번호 : 2011-0026530)

### 참고문헌

1. 김남일. 「한국의학사에서의 의안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05; 18(2).
2.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3. 박문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4. 허준. 『동의보감』. 남산당. 1998.
5. 서유구. 『인제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